

대학경쟁시대에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역할



김 윤 배 | Chungju University 총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Chungju University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영국 윌(ULL)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Chungju University 자문위원,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 명예이사,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충북테크노파크 이사, 국제PTP세계본부 이사, 한국유럽학회 자문위원,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위원회 위원,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상임위원, 한국정치학회 명예이사, 충북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충북지역총장협의회 회장, 충북인재양성재단 이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를 맡고 있다.

바야흐로 경쟁의 시대다. 진리의 상이람이요, 학문의 대전당이라 불리던 고즈넉한 대학 캠퍼스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 구상일들 모두가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다. 이름학교 한가로운 2009년의 대학 캠퍼스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의 경쟁으로 가득하다. 치열한 연구활동을 비롯해 학문적 정열과 배움의 의욕에도 경쟁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최근 대학 사회에 반아무리든 경쟁의 의미가 과거와는 다른 듯하다. 지난 세기 대학 사회에 통용됐던 경쟁이 학문적 성과와 배움의 결과를 위한, 개인적 차원의 상대비교라고 한다면, 2009년 현재 우리 대학 사회가 맞고 있는 경쟁 상황은 그보다 훨씬 다차원적·다원적·다극적의 '경쟁력'이란 말은 이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그 의미의 스펙트럼 한쪽에 '국가의 경쟁력'이란 말이 암묵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대학들의 경쟁력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가적 관심사가 된 것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야 공교육 개혁 및 입시정책이 아닌, 순전히 대학 자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기 시작했고, 다

양한 방면에서 대학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BK21 또는 NURI라는 이름의 대학지원제도를 시행해 일정한 성과를 창출했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 주체가 배제됐기 때문이었다. 간혹 일부의 주장이 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개혁은, 교육환경의 변화 속도에 적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학들의 다양한 여건과 부합하지 않았던 탓에, 힘들게 정책을 수립했어도 힘있게 추진되지는 못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방한 현 정부가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러했다. 자율성과 더불어 사회적 책무도 함께 부여하겠다는 현 정부의 대학교육 개혁안은— 물론 세세한 부분에서 앞으로 다듬어야 할 부분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Column

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대학들에게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고 창조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했다.

더욱이 이와 같은 개혁의 방향, 대학교육 선진화 정책은 많은 대학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아마도 장래 인구감소 및 대학 진학률의 하락 우려 등에 따른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위원회' 주도의 대학구조조정 계획도 많은 대학구성원들에게 대학의 자율적 개혁과 경쟁력 강화 노력이 대단히 시급함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대학 개혁정책은 의도한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신입생의 선발에서부터 졸업 및 졸업 후에 이르는 대학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진일보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며, 대학의 행·재정적인 부문뿐 아니라 교수활동과 연구활동 등에서도 효과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대학들은 생존의 문제가 걸린 상황에 직면했으므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은 각각 서로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개혁의 방법과 강도, 경쟁력 강화의 세부적 방향은 서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차이가 다양하고 다채로운 대학교육을 이끌고, 대학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은 대학들의 개별적 차이를 최대한 보존하여, 거기에서 오는 발전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졌다. 대학 간 협력기구로서 회원교의 자율적 발전을 촉진하고 그 권익을 옹호하는 동시에, 법적 자율기구로서 대학교육의 상층적 발전을 이끌고 도모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 공동의 목표와 방향, 원칙은 이미 올바르게 정해졌으므로,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마련된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소통을 확대하여 지혜를 나누고 또한 끊임없이 서로를 독려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기대한다. ■